

30년 이상 장수가게 전통명가 발굴 육성

군산시, 서류·현장·발표회 10개 업체 선정 계획 인증서 교부·홍보·맞춤형 컨설팅 등 혜택 부여

자립도시 군산시가 지역 내에서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해온 장수 가게를 선정해 발굴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30년 이상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고 지역과 동고동락 해 온 군산 전통명가를 발굴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군산 전통명가 육성사업은 과당경쟁

과 빈번한 창·폐업 등으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묵묵히 격동의 세월을 버텨 온 지역 장수가게를 선정해업체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추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의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군산에서 30년 이상 지속적인 동일업종을 영위할 소상공

인, 가업승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사업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1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군산 전통명가 인증현판과 인증서를 교부받으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마케팅과 1:1 맞춤형 컨설팅, 경영환경 시설 개선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선정 이후 3년간 관리기간을 지정,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소상공인이 대를 이어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우 군산시 지역경제과장은 “군

산 전통명가 육성사업을 통해 고용·산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장수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한층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전통명가 육성사업은 9월 5일까지 접수(방문·우편)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 고시공고(제2019-1524호) 또는 군산시 지역경제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구도심 우체통 거리 손편지 축제

군산시, 30일부터 이틀간 우체통거리1길서 개최

문화가 흐르는 관광도시 군산시가 근대역사문화 거리를 중심으로 구도심 지역을 특색 있는 도심지로 탈바꿈 시키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월명중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우체통거리1길(구 거석길, 군산우체국 앞)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체통 거리 손편지 축제는 군산우체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란도란 경관협정 운영회와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는 사업으로 손편지 쓰기 대회, 느린 우체통 열거, 내만의 우표 만들기, 우체통거리 차 체험 등 추억과 편지를 주제로 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우체통거리를 알리고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8월에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를 치른 후 오는 10월에 시간 여행 축제와 연계한 우체통거리

365 축제가 기획돼 있어 우체통거리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우체통 거리는 지난 2016년 도시재생 선도 사업으로 추진된 주민공모사업에 우체국 주변 주민들이 ‘도란도란 공동체’를 구성해 직접 우체통을 손질하고 그림을 그려 상가 앞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작했다.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경관협정 체결 및 우리동네 살리기의 모범사례로 입소문을 타게됐다.
주병선 도시재생과장은 “요즘 뉴트로라는 신개념 북도 바람이 뜨거운데 뉴트로의 대표격인 우체통거리 손편지 축제를 통해 가슴속에 남아있는 옛 추억을 그리며 시원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며 “인근주차장이 협소하므로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 및 관광객은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헌율 시장, 인구변화에 선제적 대응 강조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소상공인 확대방안 검토 지시

정헌율 군산시장이 26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구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업무수행 시 반드시 이를 통해 인구증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 전 직원이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헌율 시장은 “현 시점에서 인구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정책, 계획, 사업 등을 수립·시행할 때 그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인구영향평가에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요사업 추진시에

인구영향을 고려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시에도 해당 사업이 인구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표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익산시는 점점 심화되는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책으로 인구관점에서 정책 및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모니터링하고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도적 시스템인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헌율 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마을전자상거래 사업을 칭찬하며, 이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마을전자상거래 지원 사업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를 농민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미흡한 소상공인 정책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며, “마을전자상거래 운영 지원이나 택배비 지원 등은 소상공인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가능한 업체들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환경정비 예산 및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 만큼 책임구역 및 작업량 제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열매남지 않은 추석에 대비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환경정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귀농귀촌인 실용교육

익산시는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 이해를 위한 공감·소통의 기회 마련 및 실질적인 기술 습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용교육은 전기·용접 및 목공 실습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인 실용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목공 교육과정은 9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관내 귀농귀촌인 및 지역민 40명을 대상으로 6주간에 걸쳐 실시되며, 전기·용접 교육과정은 11월 4일부터 11월 12일까지 40명을 대상으로 동아직업전문학교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수강생은 30일까지 80명 모집하며, 수강을 희망하는 관내 지역농업인 및 귀농귀촌인은 익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촌지원과 귀농귀촌계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모바일상품권 활성화 업무협약

군산시가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을 운영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군산대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산·학·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 광병선 군산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월 발행하는 모바일 군산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체험형 청년인턴을 운영하기로 했다.
상품권의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군산시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전국 최초로 행정인턴을 지원한다. 행정인턴

운영을 통해 청년층에게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에서는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는 등 공사-지사-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청년인턴은 군산대학교의 추천을 통해 10여명의 청년인턴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배치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 행정인턴 운영으로 관내 대학생들에게 행정 체험과 직업능력 향상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26일 시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 군산대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을 운영하는 산·학·관 협약식을 가졌다.

익산시,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

익산시는 가구분할 신청 누락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과다 부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제도는 1개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신고한 세대 수 만큼 누진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가구분할을 신청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돼 수도요금

이 2배 가까이 뛰게 된다.
특히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가구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분할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신청, 상수도과에 팩스(859-5063)로 전송하면 익월 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익산=장영원 기자

‘익산시 한권의 책’ 전국 독후감 공모전

익산시가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9 익산시 한권의 책 독후감을 공모한다.
독후감은 오는 9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응모부문은 3개 부문(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으로 초등학생 이상이면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2019 익산시 한권의 책 선정도서와 계층별 권장도서 중 한권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직접 방문, 우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하면 된다.
독후감 대상도서는 2019 익산시 한권의 책 선정도서인 ‘해질 무렵(황석영)’, 청소년 권장도서인 ‘이름을 훔친 소년(이꽃님)’, 아동 권장도서 ‘푸른사자 와니니(이현)’ 등이다.
수상작은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제출된 독후감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각 2명, 장려상 각 4명 등 총 21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총 324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익산=장인천 기자

푸르밀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영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nF1 + 카제이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